

크리스마스엔 작지만 따뜻한 선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 연인, 부부, 친구,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선물'이 오가는 빈도가 가장 높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대형 완구점 등의 1년 매출을 매조지하는 크리스마스는, 이를 업체들에게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보통 크리스마스 시즌은 12월 셋째 주부터 시작돼 연말까지 계속되며, 이 시기 완구점이나 백화점 등의 매출은 평상시의 3~4배까지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주머니 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저렴한 선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려는 서민들의 일상도 이 같은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물론이다.

■ 연인들 사이엔

머플러·장갑·화장품 인기

■ 자녀에게는

4만~5만원대 로봇·인형

■ 부모님 위해서라면

아웃도어 의류·건강 신발

광주신세계 크리스마스 시즌(12월19일~25일)매출은 경기와 상관없이 매년 증가세에 있다. 지난 2005년 잠시 주춤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매년 10% 내외의 매출 신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4년 1주간 71억8천800만원 매출을 올린 광주신세계는 4년 뒤인 2008년에는 111억6백만원으로, 무려 39억1천800만원이 급증했다. 이 기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심리가 극히 위축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상승폭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시즌 하루 평균 매출만 15억8천7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06년 27%, 2007년 10%, 2008년 20%의 신장을 보였으며, 올해도 20% 가량의 매출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일반적으로 매출이 급증하는 품목은 장갑, 머플러, 지갑, 액세서리, 화장품 등이다. 이들 품목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면서, 겨울철에 필요하거나

여성들이 선호하는 아이템이다. 선물을 받는 연령층에 따라 선물의 종류는 다양하게 분류된다. 노인층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건강의자나 안마의자 등 의료 기기 선물에 이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난해에는 외인이나 아웃도어의류, 건강신발 등

의 매출이 높아졌다. 겨울철 미끄럼방지 기능까지 갖춘 효도신발은 20만원 대, 내의 4만2천원부터 7만8천원까지 판매되고 있다.

연인이나 친구사이의 선물은, 머플러, 장갑, 액세서리(목걸이·귀고리), 지갑, 화장품 등이 일반적이다. 지난 2005년 특이하게 오르골, 앨범, 액자 등이 주로 나갔고, 2006년부터는 전자사전, 가방이, 2007년부터는 화장품, 면도기, 속옷, 잠옷 매출도 높아졌다. 어린 자녀에게 주는 선물은 책, 인형, 학용품 등이 일반적 선물로 자리 잡았으나, 2007년에는 자세교정의자, 낸던도 등 전자용품 선물이 유행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최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는 자녀, 부모, 연인, 친구 등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했으며, 지난해에는 패딩 부츠, 힐 귀마개가 인기였다.

크리스마스 시즌 장사가 한 해 매출을 결정하는 완구점에서는 4만~5만원대의 로봇이나 인형 종류의 매출이 크게 높아진다. 서구 양동 장난감 할인마트의 경우 4만~5만원 대의 상품을 1만원 대에 판매하는 깜짝세일을 잘 이용할 경우 저렴하게 자녀 선물을 마련 할 수 있다.

마트 한 관계자는 "수입 전동차의 경우 가격이 100만원대에 이르지만, 이런 고가품은 크리스마스 시즌과 연관성이 별로 없다"며 "요즘엔 불경기 탓인지, 조르는 자녀에게 한 가지 선물만 사도록 미리 약속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롯데백화점 광주점, 현대백화점 광주점 등은 크리스마스가 한 달 이상 남은 지난달부터 일찌감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크리스마스를 목표로 매장 꾸미기 한창인 것이다. 크리스마스 캐슬을 틀고, 화려한 야간조명으로 외관이나 건물 앞 가로등을 치장하고 있지만, 고객들의 주머니가 어느 정도나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광주신세계 박인철 과장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고가보다는 실속형이 전체 매출을 결정하며, 대부분 고객들이 필요없는 소비는 되도록 피하려고 한다"며 "크리스마스 시즌이 결국 한 해의 매출을 좌우하기 때문에 백화점 간 경쟁이 치열하며, 독특한 아이템이나 인기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여름부터 물량 확보를 끝낸 상태"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백화점에 소원을 말해봐!

롯데·현대, 새해 소원이뤄주는 경품행사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이 새해 소원을 들어주는 경품을 내걸었다. 26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고가 아파트, 우주여행 경품에 이어 '꿈과 소원'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롯데백화점은 2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전국 점포에서 '무한 경품! 2010년 꿈과 소원을 이루어 드립니다!'를 주제로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백화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새해 꿈과 소망을 공모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아 이들이 적어낸 새해 꿈과 소망을 이뤄주기로 한 것이다. 상품 구매와 상관없이 롯데백화점 전국 점포에서 응모할 수 있다.

응모권에 인쇄돼 있는 "나는 000와 000에서 000을 하고 싶다"는 문장의 빈칸에 꿈과 소망을 적어 응모하면 된다. 예컨대 '나는 아니카 소렌스탄과 세인트 앤드루스 올드코스에서 골프 라운딩을 하고 싶다', '나는 우리 집을 바로크풍으로 리뉴얼하고 싶다', '나는 가족들과 롯데호텔 프레지던셜룸에서 3박 동안 황제생활을 하고 싶다', '나는 맞은 스쿨에서 2년간 MBA 공부를 하고 싶다' 등으로 새해 소망을 적어낼 수 있다.

1등 1명에게는 소원을 들어주는 것과 함께 롯데백화점의 최상위 고객들이 누릴 수 있는 'MVC 프레스티지'의 혜택이 주어지며 2등 29명에게는 격려금 300만원이 제공된다.

현대백화점도 2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현대백화점 전국 11개 점포에서 '드림 6 프로젝트'란 이름의 경품행사를 시작했다. 사람들이 새해소원과 실행계획을 세워보지만 대개 작성삼일로 끝나는 것은 자기 의지, 돈, 전문가 도움, 행운 부족 등 4가지 때문이라는 데 착안, 이 4가지 실패 원인을 한 번에 해결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 경품 행사는 ▲현금 1억원 ▲우리 아이 1등 ▲피부 미인 되기 ▲원어민 수준 영어회화 ▲싱글 골퍼 ▲S라인(또는 식스팩) 등 보통 사람이 많이 꿈꾸는 6가지 소원 별로 응모를 받고 추첨을 통해 10명의 당첨자를 뽑아 소원 별(분야별)로 성공 비법을 알려주고 성취의지를 잊지 않도록 동기도 부여해주는 방식이다. 최대 1년까지 1대 1로 관리해주고, 당첨자가 땀 흘린 만큼 성과가 달라지게 해주는 '노력형 경품'이라는 점이 기존의 일반적인 1회성, 환급성 경품과 다른 점이라고 현재백화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롯데백화점은 27일부터 한 달간 '꿈의 경품' 3번째 시리즈로 2010년 새해 고객의 꿈과 소망을 응모받아 추첨을 통해 이를 이루어 주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광고접수안내

• (062) 227-9600
• FAX:(062) 227-9500

분석

골프회원증
No.J07-50-0007
한명C.C
김상진
상기 회원증(大,小)을 분실공고함.

건설업 분합·양도·양수 공고

위험재·세관법상의 경위 외에 건설업 등록 면허증 등에 따른 분류별로 인허가 기한 유예제한이 반복·중복·복수로 겹친 경우 그에 따른 신설 기업별 제 1회 및 2회 시장통지 제 1회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문은 양수·판매에 이어 있는 이행계획(양수·판매·제작 등)에 표기된 기관에 서면으로 제작된 계약서에 부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양수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사 2002-02-31호
2. 양수면적 : 2,716.00m²
3.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4. 양수면적 : 2009년 11월 26일 ~ 2009년 12월 27일
5.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6.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7.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8.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9.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0.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1.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2.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3.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4.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5.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6.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7.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8.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9.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20.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21.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22.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23.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24.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25.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26.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27.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28.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29.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30.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31.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32.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33.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34.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35.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36.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37.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38.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39.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40.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41.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42.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43.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44.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45.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46.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47.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48.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49.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50.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51.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52.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53.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54.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55.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56.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57.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58.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59.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60.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61.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62.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63.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64.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65.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66.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67.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68.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69.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70.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71.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72.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73.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74.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75.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76.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77.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78.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79.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80.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81.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82.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83.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84.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85.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86.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87.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88.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89.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90.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91.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92.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93.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94.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95.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96.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97.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98.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99.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00.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01.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02.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03.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04.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05.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06.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07.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08.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09.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10.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11.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12.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13.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14.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15.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16.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17.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18.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19.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20.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21.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22.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23.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24.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25.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26.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27.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28.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29.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30.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31.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32.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33.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34.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35.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36.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37.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38.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39.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40. 양수면적 : 2009년 12월 27일
141. 양수면적 : 2009년 12월